

# 국민 총참여와 화합촉진의 표상

## 국정자문회의 개회식 치사

1981년 4월 20일

존경하는 국정자문회의 의장,

그리고 자문위원 여러분!

본인은 제5공화국이 출범한 뜻깊은 시점에서 각계원로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자문회의가 발족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화합과 참여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정자문위원직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여러분에게 온 국민과 함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개월 여에 걸쳐 제12대 대통령이 취임했고 제11대 국회가 개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자문회의도 개회식을 가짐으로써 이제 새 공화국이 발전해 갈 기초는 더욱 굳건히 다져졌습니다.

국정자문위원 여러분!

국정자문회의의 설치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5공화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구는 단순한 상징적 존재 이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헌법기관인 것입니다.

국정자문회의는 다른 어느 민주주의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종전의 우리 나라 헌법에도 업슨 독창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구의 설치에 근대적 민주주의를 우리의 토양에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가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과 제도는 나라마다 다르고 또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는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 나라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적 배경의 산물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경험과 연륜을 존중하는 미풍량속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을 오늘의 우리 정치현실에 맞추어 창조적으로 수용 발전시킨 것이 바로 국정자문회의제도인 것입니다.

국정자문회의야말로 전래의 가치와 현실적 요구를 조화시킨 창의적이며 주체적인 제도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우리는 화합과 참여의 분위기가 폭넓게 조성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새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조해 나가야 할 역사는 다른 누구의 역사가 아닌 바로 우리의 역사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야 할 민족의 역사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국민 각자는 새 역사 창조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것을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호소하고자 합니다.

회피와 방관과 냉소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민족의 저력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우리의 헌정은 짧지 않은 세월을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표류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역사는 우리 손으로 펼쳐 나간다는 국민의 주체적 참여가 결여되었던 데 하나의 원인이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수립 후 지난 30여 년간 장기집권이 거듭됨으로써 다대수 국민들이 국정에서 소외되어 참여의 길이 차단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갈등과 대결과 분열은 심화됐고 이는 국가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정치적 비리가 점차 척결되어 가는 가운데 건전한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하고 우리 체질에 알맞은 민주주의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제5공화국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과업에 앞장 서야 할 대통령으로서 제5공화국 헌법의 규정대로 한번의 임기만을 끝내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할 것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약속해 왔습니다.

국정자문위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이 기회를 빌어 이같은 본인의 약속이 반드시 실천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지난날 헌정을 얼룩지게 했던 갈등과 대결의 잔재, 그리고 분열의 악몽은 이제 모두 새 역사의 새 시대 개척을 위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민주복지 국가건설을 위한 국민총참여의 깃발이 높이 게양되었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국정자문회의는 바로 이러한 국민총참여와 화합 촉진의 한 표상인 것입니다.

본인은 헌법정신과 국정자문회의의 설치의의를 되새겨 앞으로 국정기본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각계원로 여러분의 애국충정에서 우러나오는 건설적 의견이 이 국정자문회의를 통해 많이 개진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세대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개척하는 데 다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맥내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